

장흥 대원정사 해련스님

“걱정마세요”... 독거노인돕기 20년

“보살님, 걱정 마세요. 이제 좋은 곳에 가려는 거니까 마음 편히 먹어요.” 경기도 장흥 대원정사 해련 스님이 품어 누운 아흔다섯 김문명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아준다. 김 할머니도 스님을 바라보며 답답히 웃는다.

리고 왔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 주고, 갈 데가 없으면 머물러 살게 했고 어려운 처지의 독학생이 있으면 슬그머니 학비를 보태 주었다.



◇해련스님이 독거노인 집을 방문, 생활비를 전달하며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다.

10평 남짓 천막법당서 시작 장례식·제사까지 도맡아 모셔

지금이나 한결 같다. 같이 지내던 일곱 노인도 모두 불귀의 객이 된지 오래다. 김 할머니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십년이 넘는 세월을 변함없이 찾아와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스님이 곁에 있어 주기에 든든하다.

신도들을 감동시켰다. 한 명씩 스님을 본받아 불우노인 돕기를 자청했다. 스님과 함께 찾아가 청소며 빨래를 해 주고 목욕도 시켜준다. 노인들이 죽으면 장례식과 49제, 제사를 거든다.

실천승가회 캄보디아 지원키로

고아보육·청년교육시설 운영

실천불교전국승가회(승가회, 의장 성관은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 한-캄보디아간 교류와 지원사업을 위한 기초 조사 작업을 벌였다.

외국인을 바탕으로 한 교류와 지원관계 조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캄보디아 내 평화운동단체인 ACT를 방문해 한-캄보디아간 NGO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엄사 화엄석경

전산화 2008년 완료

전남 구례군은 17일 2008년 완료로 목표 화엄사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의 전산화 작업 완료와 보존작업 건립 기초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군비 등 34억원을 들여 6월부터 화엄사 삼층 석탑(국보 제35호)과 천은사 화장실, 사도리 석불좌상 비각(지방유형문화재 제133호)등을 보수·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암사 승선교 해체·복원

6월 중순까지 통행금지

전남 순천시 선암사 아치모양의 다리인 승선교(보물 제400호)가 15일부터 6월 중순까지 관람객의 통행 및 접근이 금지된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선암사 입구 승선교의 홍예석(아치) 서쪽 하단부 일부가 침하·이완으로 붕괴위험이 높아 4억 3천여만원을 들여 이를 해체·복원한다고 밝혔다.

갑사 '괴목대신제' 봉행

1천여 신도·주민 참석

공주 갑사주지 장곡사는 3일 사찰 입구에 위치한 1천600여년 된 괴목(느티나무)에서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괴목대신제'를 봉행했다.

이날 괴목대신제는 괴목제, 토신제, 장승제 등 다양한 제사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길놀이 사물놀이 같은 문화공연과 민속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갑사 괴목대신제는 마을에 번진 역병을 퇴치하고자 스님과 주민들이 300여년전부터 괴목을 제례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제주 선덕사 '묘법연화경'

유형문화재 지정 요청

제주 서귀포시 선덕사 소장<묘법연화경>목판본이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5일 제주도에 선덕사<묘법연화경>목판본이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했다. 선덕사<묘법연화경>은 권 7에 "1443년(세종 25년) 태조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개판했다"는 효령대군과 영흥대군의 발문이 적혀 있으며, 1980년대 초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이 증정한 것이다.

우리결 우리 신도

“이웃아픔 외면하면 불자 아니죠”

능인정사 성동포교당 관음회 성정숙 회장

서울 성동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능인정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난 1985년 문을 연 이래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쫓따다 쌀과 생활비를 전해주는 것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성동구민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째, 처음 지역에서 포교와 불사에 앞장 서던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좋은 일을 하면 이 세상이 바뀌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쫓따다 쌀과 생활비를 전해주는 것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성동구민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아원등 1백여회 방문 자비의 쌀

군법당·경찰서 찾아 부처님 말씀

“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불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불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능인정사성정숙회장(왼쪽)이 불단을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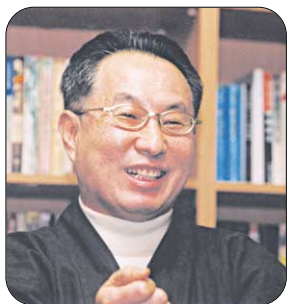


추천의 말 법경스님 능인정사

절살림 묵묵히 뒷바라지

니다. 강대원행 신도회장님과 성성불화 관음회장은 신도들의 대소사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 수행에도 뒤지지 않아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는 분들입니다. 능인정사는 이러한 신도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더욱 포교와 봉사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하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테이링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수시접수

“단 한번 ‘명상 최면’으로 어린이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해결”

2002년 12월 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

<국제신문 12월 21일자 29면 부산일보 12월 21일자 30면

동아일보 12월 23일자 A 29면 보도>을 해결하는데 ‘명상최면’을 통하여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목격자가 최면상태에서 한번도 보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렸다는데 있다. 최면상태에서 피술자는 범인의 양쪽귀(耳)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얼굴의 흉터와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것까지 또렷이 떠올렸다. 이런 초월적 현상은 일반 최면과 다른 명상최면으로 가능한 일이다.